

# 유아교육기관 실외놀이 시설 설비 실태와 안전평가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Actual Conditions of Outdoor Facilities Safety in Kindergarten Playground

경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이희선

성남시 상대원 병설유치원

교사 최미란

Department of Child Welfare, Kyungwon University

Professor : Hee Sun Lee

Sangdaewon Primary School, Seongnam

Public Kindergarten Teacher : Mi Ran Choi

### ◀ 목 차 ▶

I. 서론

II. 연구방법

III. 연구결과

IV. 요약 및 논의

참고문헌

###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actual conditions of outdoor facilities and evaluated safety evaluations levels in playgrounds based on types of kindergartens. The samples for the survey were 100 kindergartens in Seongnam city Gyeonggi-Do province. Most outdoor facilities consisted of playgrounds with sand area and complex playing equipments, while wood-working area, sensory playing area, and mud playing area were less equipped than other facilities. In the case of outdoor playing facilities there were meaningful environmental differences within kindergartens. The public has less diversity in play areas and equipments and providing safety guidelines in playgrounds than privates. The score for the safety evaluations in the outdoor play environment was higher than average. As the range outdoor playing facilities increased, safety was dually considered, while kindergartens with a higher ratio of child-teacher numbers exhibited less consideration to playground safety.

**주제어(Key Words):** 실외놀이터(outdoor play area), 실외놀이시설(outdoor play facilities), 실외놀이 안전도(outdoor safety evaluation)

## I. 서론

유아교육기관 실외놀이는 유아에게 커다란 만족감을 줄 뿐만 아니라 전인적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국내외 관련 선행 연구들에 의해 꾸준히 강조되어 왔다(신동주, 2004; Frost, 1992; Johnson, Christi, & Yawkey, 1999; Jolley, 1995; Shin & Frost, 1995). 실외놀이터는 벽과 천장이 없는 개방성, 신선한 공기와 햇볕, 바람의 세기 및 습도, 잔디와 흙의 감촉 등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감각적 경험을 제공하므로 이곳에서의 유아놀이 행동은 실내와 본질적으로 다르다. 실내에서 경험할 수 없는 자연과의 직접적인 접촉은 유아에게 신체적 해방감뿐만 아니라 심리적 해방감을 주어 자유롭고 창의적이며 수준 높은 놀이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한다. 유아에게 실외놀이터는 또래와 함께 즐겁게 뛰어 놀 수 있는 즐거운 공간으로 인식되어 실내보다 실외놀이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놀이행동과 물리적 환경을 다룬 연구에 의하면(이숙재, 1999; 지혜련, 김은기, 1990; Cullen, 1994) 유아는 실외놀이 공간에서 보다 많은 자유를 경험하고 활발한 신체운동은 실내활동으로 인한 긴장과 공격적 감정을 해소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외놀이는 또래간의 상호작용을 촉진시켜 협동놀이가 자주 일어나며 이로 인해 사회적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제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변화가 풍부한 자연환경으로부터의 다양한 감각적 경험은 놀이를 자유롭게 변형해 나가는 상상력을 자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실외놀이가 유아성장 발달에 중요한 가치를 지님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유아교육과정에서 그 가치가 낮게 평가되어 실외놀이보다 실내에서 하는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실외환경은 실내와는 다른 물리적 특성으로 인하여 실내와는 질적으로 다른 놀이경험을 제공하고 유아에게 다양한 발달적 욕구와 흥미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환경으로 놀이를 촉진시키므로 유아교육기관에서는 실외놀이 공간확충과 구성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유아교육기관은 실외놀이터에 구조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을 설치하고 있어 다양한 놀이를 촉진시키는 공간구성과 안전한 놀이시설 설비를 갖춘 기관의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신동주, 2004). 더구나 많은 교사들은 실외놀이를 신체운동 관련 활동으로 간주하여 실외놀이의 교육적 효과를 과소평가하고 있으며(김은미, 2005) 실제로 유아교육과정 운영에 실외놀이가 계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외놀이를 꺼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신동주, 2004). 그 이유는 교사들은 실외놀이 공간을 유아들이 마음껏 뛰어 놀면서 모험심을 발휘할 만큼 자유롭고 매력적이지만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잠재되어 있는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실제적으로 기관

에서 안전한 실외놀이를 위한 공간구성과 시설설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유아교육기관의 실외놀이 운영에 관한 연구(유정선, 엄정애, 2004)에 의하면 교사는 실외놀이 운영 시 가장 어려운 점으로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여 불안하다고 하였으며 만일의 안전사고 발생 시 사후처리 방법과 책임성에 대한 문제점도 함께 지적하였다. 더구나 실외놀이 운영 시 교사가 담당해야 할 유아의 수가 많을수록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로 인하여 개별적인 상호작용은 거의 일어나지 않아 실외놀이의 교육적 효과가 감소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김은미, 2005).

유아교육기관의 실외놀이터는 유아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 필요한 대표적인 물리적 교육환경이다. 최근 도시집중화로 인하여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주변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지고 있으며, 가정보다 유아교육기관에서 보내는 시간이 점차 늘어나게 되면서 유아들에게 충분한 실외놀이 경험이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오늘날의 실내위주 생활환경 문화는 유아들에게 움직임에 대한 욕구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여 소아비만 등의 신체 건강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정신적 긴장과 부정적 감정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마저 제공하지 못하여 정서적인 문제를 발생시켜 전인적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유아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유아교육기관에서 다양한 실외놀이 경험을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실외놀이는 충분한 공간 확보, 적절한 공간구성, 제공되는 놀이시설 및 기능의 다양성에 따라 놀이활동이 달라진다. 실외놀이 시설의 중요한 기능은 유아의 놀이를 촉진하는 것이다. 유아를 위한 실외놀이 환경은 놀이시설물의 유무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놀이시설마다 설비를 제대로 갖추어 기능을 충분히 하는지를 평가하는 놀이시설의 질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 질적으로 우수한 실외놀이 시설이 제공된 유아교육기관에서는 유아들은 놀이에 집중할 수 있으며, 다양한 놀이활동을 통해 전인적 발달을 촉진할 수 있다. 질적으로 우수한 실외놀이 환경은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공간으로 유아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놀이가 가능하도록 놀이시설과 적합한 설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Frost(1992)는 실외놀이 공간의 조건으로 다양한 동작을 할 수 있는 공간, 감각을 자극하는 공간, 신기함, 도전감, 다양성 등으로 유아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편안함과 안전감을 제공하는 공간을 제안하였다. 즉 유아에게 실외놀이 경험의 다양성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복합놀이기구나 그네와 같은 고정놀이 시설물 이외에 물놀이와 모래놀이를 할 수 있는 영역, 극놀이를 촉진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 및 놀이감, 구성놀이를 위한 공간, 게임이나 그룹활동을 위한 개방된 공간, 여러 가지 탈 것과 소품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 자연물을 접하고 관찰할 수 있는 영역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유아들이 다양한 실외놀이 환경에서 놀이를 효율적으로 즐기기 위해서는 실외놀이 공간도 실내공간처럼 활동성을 기준으로 동적놀이와 정적놀이 영역을 구분하여 다양한 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직하여 신체운동 놀이 후 정적인 놀이와 휴식이 가능하도록 놀이의 균형을 고려한 영역을 배치하여 유아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 또한 실외공간에 순환통로를 만들어 각 시설물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이동 시 다른 놀이를 하는 유아와의 충돌을 줄여주면서, 성인의 감독을 수월하게 하여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어야 한다(Wellhousen, 2002). 실외공간은 유아의 신체활동이 활발한 사회적 공간으로 놀이 시 추락과 놀이시설물 사고 등의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유아의 발달과 흥미에 적합한 실외놀이 시설 설비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안전하고 교육적인 활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부분의 유아 안전사고는 지속적인 성장발달이 이루어지는 유아 자체의 문제이기보다는 유아를 둘러싼 주변의 물리적 환경과 성인들의 안전관리 문제로 발생한다. 유아 안전사고 관련 연구에 의하면 사고시간 별로는 실외놀이 활동, 실내 자유선택활동, 실내 신체활동 및 게임활동 순으로 많이 발생하였고, 사고유형 별로는 부딪침, 넘어짐, 미끄럼 순으로 나타나 안전사고 위험이 가장 높은 활동은 실외놀이 활동으로 나타났다(차경순, 유연옥, 2006; 최명해, 2001). 실외놀이에서 놀이시설물에 의한 사고는 전체 안전사고의 약 36% 차지하며 미끄럼틀, 그네, 시소, 정글짐 등의 순으로 대부분 고정놀이 시설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은숙, 김정남, 2003). 안전사고의 원인은 도시지역의 경우 한 학급당 인원수가 많기 때문이며, 읍·면지역의 경우는 놀이시설과 설비의 부적합으로 사고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최명해, 2001). 유아 안전사고는 남아가 여아보다 그리고 연령으로는 3, 4, 5세 유아가 높은 사고율을 보였으며, 계절특성으로는 봄에, 특히 3-4월에 높은 사고율을 보였다(조순희 2002; 홍혜경, 지성애, 김영옥, 1998). 실외놀이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는 유아의 연령, 신체크기, 운동능력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부적절한 시설 설비와 안전한 시설을 유지하기 위한 안전점검의 미비로 인한 상해사고가 많다. 이어서 유아의 불안정한 행동 및 부주의, 또래집단이나 타인에 의한 피해, 성인의 안전에 대한 지도 부족으로도 안전사고가 발생한다(Frost, 1992). 실외놀이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안전사고의 위험요인을 찾아서 환경을 개선하고 발달에 적합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안전한 물리적 환경을 제공하고 정기적 안전점검을 통한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유아의 안전한 실외놀이를 위해서는 많은 요소들을 고려해야 한다. 실외놀이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선진국에서는 유아놀이 시설물의 안전과 관련된 국가기준이나, 유럽 표준위원회(CEN) 또는 국제표준기구(ISO)에서 개발한 공동 기준을 놀이시설물을 설치·관리할 때 적용하고 있으며, 실외놀이 시설물의 안전점검관련 내용을 포함시켜 놀이안전을 도모하고 있다. ISO가 제시하는 실외놀이 시설 안전점검은 일상적인 점검으로 파괴적 행위, 과도한 이용 및 날씨로 인한 위험요소를 발견해 내는 것으로 특별한 기구나 도구없이 실시 할 수 있다. 일상적인 점검의 항목으로는 청결상태는 어떠한가, 놀이시설 바닥의 정리 상태는 어떠한가, 놀이터 바닥처리의 마감상태는 어떠한가, 날카롭게 튀어나온 부분은 없는가, 움직이는 놀이시설의 연결부분이 낡거나 헐거워지지 않았는가, 놀이시설의 구조적 안전상태는 어떠한가 등이 포함된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유아교육기관 시설 안전관리 매뉴얼을 발간하여 실외놀이 환경에서 추락이나 충돌 같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놀이시설의 구체적인 점검사항을 제시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1년에 한번씩 안전도 정밀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교육인적자원부, 2006). 유아안전을 다룬 선행연구에 의하면 유아교육기관 유형과 지역적 특성에 따라 안전환경 운영수준에 차이가 나타났다. 보육시설은 국공립이 사립에 비해 실외놀이 환경의 안전성 수준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홍길희, 2003) 유치원의 경우는 지역적 특성에 따라 공·사립 유치원의 안전수준이 다르게 나타났다. 대도시는 사립유치원의 실외놀이 시설 안전성이 우수하였으며 읍·면 소재 유치원은 실외놀이 시설 설비가 빈약하였으며 관리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립유치원의 대부분이 초등학교와 공동으로 놀이공간과 시설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실외놀이 공간은 충족되었으나 놀이시설과 설비가 유아발달에 적합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고미경, 류숙희, 나 정, 2006). 한편 유아교육기관의 학급 규모가 크고 원아수가 많을수록 환경의 안전도 점수가 높게 나타나 실내·외 안전한 환경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홍길희, 2003). 이와 같은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보면 설립유형, 학급규모, 원아수에 따라 유아교육기관의 실외 안전환경 수준이 다른 것으로 간주되어 실외놀이 환경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학급규모와 관련성이 있는 실외놀이 시설 보유개수와 교사 대 유아의 비율을 고려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실외놀이 시 교사의 중요한 역할은 유아의 안전지도이다. 대부분의 교사는 실외놀이 운영 시 유아 안전 문제를 가장 어려운 점이라고 지적하였으며, 특히 교사 대 유아의 비율이 높을수록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김은미, 2005) 교사 1인당 유

아비율이 실외놀이 안전에 주는 영향을 파악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실외놀이가 이전에 평가되어 왔던 것보다 더 많은 교육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면서 이에 따라 실외놀이 시설과 설비 실태에 관한 연구(고영자, 1998; 구자옥, 1992; 김아연, 1997; 소애선, 2000), 실외놀이 환경에 따른 유아의 놀이행동에 대한 연구(김형미, 1998; 노현주, 1994; 조경희, 1999), 유아교육기관에서 실외놀이 운영실태와 교사의 인식에 대한 연구(김은미, 2005; 김정수, 2002; 노인숙, 2001; 신동주, 2004; 심운숙, 1994), 실외놀이터 놀이시설물 안전에 관한 연구(나옥인, 2000; 신동주, 김명순, 1999; 지혜련, 김온기, 1994) 등이 이루어졌으나 실외놀이 시설 설비의 안전도를 평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유아의 전인적 발달을 위한 실외놀이 환경은 놀이시설물의 유무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각 시설마다 설비를 갖추어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안전도의 질적인 측면을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 유아교육기관의 실외놀이 시설 설비의 안전도 평가의 중요성은 유아의 발달적 특징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유아기는 신체조절 능력이나 운동기능 발달이 미숙하여 위험에 대한 인지수준이 낮고 상황판단이나 위험예측 능력이 부족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이 가장 큰 시기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안전사고는 실외놀이터에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이은숙, 김정남, 2003; 차경순, 유연옥, 2006) 전인적 발달을 위한 실외놀이 경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놀이시설 설비의 안전사고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환경을 개선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 유지하는 것은 중요하다. 따라서 유아의 발달적 요구와 흥미에 적합한 안전한 실외놀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놀이 시설 설비 실태와 안전도를 점점 분석해 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따라

서 본 연구는 실외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한 물리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실외놀이 시설 설비의 안전도를 점검하여 문제점 및 개선점을 제시함으로써, 안전한 환경구성을 위한 구체적 지침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토대로 실외놀이의 활성화를 위한 놀이시설 설비의 안전관리를 강구하고, 실외놀이 운영 시 효율적인 안전교육을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 유아교육기관의 실외놀이 시설 설비의 환경구성 실태는 어떠한가?
2. 유아교육기관의 실외놀이 시설 설비의 환경구성은 기관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3. 유아교육기관의 실외놀이 시설 설비의 안전도 평가는 기관 유형, 실외시설 보유개수, 교사 1인당 유아비율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4. 유아교육기관의 실외놀이 시설 설비의 안전관리 현황은 기관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경기도 S시에 소재한 35개의 공립유치원 84개 사립 유치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연구자는 2005년 10월 중에 119부의 설문지를 각 기관별로 우편으로 발송 후 각 기관마다 1명의 교사가 해당 설문지를 작성하게 하여 우편으로 반송하거나 연구자가 직접 회수하여 총 103부를 회수하였다. 이중 불성실하게 응답하였다고 판단되는 설문 3부를 제외하고 총 100부를 본 연구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 응답한 유아교육기관의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응답자 기관의 일반적 특성

		N(%)		
		사립	공립	계
학급수	2학급이하	2( 7.1)	26(92.9)	28(28.0)
	3~5학급	27(75.0)	9(25.0)	36(36.0)
	6학급이상	36(100.0)	0( .0)	36(36.0)
놀이시설 보유수	8개이하	19(57.6)	14(42.4)	33(33.7)
	9~13개	24(66.7)	12(33.3)	36(36.7)
	14개이상	20(69.0)	9(31.0)	29(29.6)
교사 대 유아비율	15인이하	29(93.5)	2( 6.5)	31(31.0)
	16~29인	28(68.3)	13(31.7)	41(41.0)
	30인이상	8(28.6)	20(71.4)	28(28.0)
전 체		65(65.0)	35(35.0)	100(100.0)

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유아교육기관의 실외놀이 시설 설비의 안전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사용한 설문지는 다음과 같다.

- 1) 실외시설 보유현황 : 실외놀이 시설 보유 개수를 알아보기 위하여 '경기도 유치원 교구·설비 기준'의 문항을 사용하여 각 기관별로 구비하고 있는 실외놀이 시설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 2) 실외놀이 시설 설비 실태 : 실외놀이 시설의 설비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Frost(1997)가 개발하고 나옥인(2000)이 번안하여 사용한 도구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원래 본 도구는 2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나 이중 실외놀이 시설 보유현황과 중복되는 7개 문항을 제외한 총 13개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4점 Likert식 척도로 구성되어 점수가 높을수록 실외놀이 시설과 설비의 기능이 우수함을 의미하며, 점수가 낮을수록 설비가 없거나 기능을 제대로 못함을 의미하며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 )는 .90이었다.
- 3) 실외놀이 안전도 평가도구 : 실외놀이 시설 설비 안전도 평가 문항은 Frost(1997)가 개발한 평가도구 중 실외놀이 환경 안전도 평가도구를 번안 수정하여 사용하였으며 이중 '수영장등 물에 빠질 위험과 교통사고의 위험이 없다'는 문항은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하지 않아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19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4점 Likert식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신뢰도계수(Cronbach's  $\alpha$ )는 .91으로 나타났다. 최종 완성된 설문지는 3명의 유아교육 전문가에게 검토를 의뢰하여 내용타당도(Content evidence of validity)를 검증받았다.
- 4) 실외놀이 안전관리 현황: 실외놀이 안전관리 현황은 노인숙(2001)의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를 본 연구에 적합하게 수정하고 보완하여 최종적으로 16문항을 구성하여 사용하였으며 신뢰도계수(Cronbach's  $\alpha$ )는 .87로 나타났다.

3. 연구 절차 및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측정도구의 적절성과 타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15명의 유아교육기관 교사를 대상으로 2005년 9월 중에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문항들이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지 검토하여 수정 및 보완하여 최종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본 연구 자료에서 실외놀이 시설 설비의 환경구성과 안전도 평가는 각 문항의 질적 내용의 측면을 고려하여 문항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기관유형, 실외놀이 시설 개수, 실외놀이 활동 시 교사 1인당 유아 비율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SPSS 11.0의 검증, t 검증, F 검증, Scheffe 검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유아교육기관의 실외놀이 시설보유 및 설비 현황

유아교육기관의 실외놀이 시설설비의 실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시설보유 현황을 조사한 결과 <표 2>와 같이 나타났다.

<표 2>에 의하면 유원장 놀이시설과 모래놀이영역의 경우 과반수이상의 유아교육기관이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물놀이영역, 목공놀이장, 기타시설 유원장은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유원장 놀이시설의 경우 미끄럼틀의 보유비율이 91.0%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종합놀이기구 82.0%, 구름다리 69.0%, 터널 64.0%순이었으며 반면에 정글짐은 42.0%, 시소는 32.0%로 보유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유형에 따른 시설 보유의 차이를 살펴보면, 유원장 놀이 시설에서 종합놀이기구는 공립이 사립에 비해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네는 사립이 공립에 비해 보유의 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모래 놀이영역은 모든 기관에서 과반수 이상이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특히 모래놀이터는 공립이 사립에 비해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물놀이 영역에서 물놀이터의 경우 사립은 55.4%, 공립은 28.6%가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도구 정리장은 사립은 50.8%, 공립은 28.6%인 것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목공 놀이영역은 다른 실외놀이영역에 비해 보유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기타시설 유원장은 사립이 공립에 비해 보유비율이 약간 더 높게 나타났으나 식물재배장을 제외하고 다른 시설에 비해 보유 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식물재배장이 55.0%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교통놀이장이 29.0%, 동물사육장이 18.0%, 감각놀이장이 9.0%, 진흙놀이장이 6.0%의 순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유형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식물 재배장은 사립의 보유비율이 66.2%, 공립이 34.3%인 것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다른 시설의 경우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은 기관유형에 따른 유아교육기관 실외놀이 시설의 환경구성 현황을 알아본 결과 <표 3>와 같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실외놀이 시설 환경구성 평가는 평균 2.59로 실외놀이 시설의 설비와 기능이 대체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기관유형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공립의 경우 평균 2.33으로 대체적으로 '설비와 기능이 빈약함'에 가까운 평가를 한 반면,

〈표 2〉 기관유형에 따른 실외놀이 시설 보유현황

N(%)

		공립 (n=35)	사립 (n=65)	전체	$\chi^2$	p
유원장 놀이시설	종합놀이기구	34(97.1)	48(73.8)	82(82.0)	8.37	.003**
	그네	13(37.1)	46(70.8)	59(59.0)	10.63	.001**
	시소	10(28.6)	22(33.8)	32(32.0)	.29	.657
	미끄럼틀	31(88.6)	60(92.3)	91(91.0)	.39	.716
	정글짐	17(48.6)	25(38.5)	42(42.0)	.96	.397
	터널	20(57.1)	44(67.7)	64(64.0)	1.10	.383
	구름다리	21(60.0)	48(73.8)	69(69.0)	2.04	.178
	망오름대	21(60.0)	32(49.2)	53(53.0)	1.06	.401
모래 놀이영역	모래놀이장(대)	31(88.6)	45(69.2)	76(76.0)	4.67	.048*
	모래놀이도구	28(80.0)	47(72.3)	75(75.0)	.72	.473
	도구정리장	26(74.3)	39(60.0)	65(65.0)	2.04	.190
물놀이영역	물놀이장	10(28.6)	36(55.4)	46(46.0)	6.59	.010*
	물놀이도구	15(42.9)	39(60.0)	54(54.0)	2.69	.141
	도구정리장	10(28.6)	33(50.8)	43(43.0)	4.57	.037*
목공 놀이장	목공놀이대	7(20.0)	17(26.2)	24(24.0)	.47	.625
	목공놀이도구	8(22.9)	17(26.2)	25(25.0)	.13	.811
	도구정리장	8(22.9)	18(27.7)	26(26.0)	.28	.641
유원장 기타시설	진흙놀이장	1(2.9)	5(7.7)	6(6.0)	.94	.662
	교통놀이장	7(20.0)	22(33.8)	29(29.0)	2.12	.171
	감각놀이장	1(2.9)	8(12.3)	9(9.0)	2.48	.155
	동물사육장	4(11.4)	14(21.5)	18(18.0)	1.58	.279
	식물재배장	12(34.3)	43(66.2)	55(55.0)	9.34	.003**

\* $p < .05$  \*\* $p < .01$

사립은 평균 2.74로 대체적으로 '설비와 기능이 양호함'에 가까운 평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평가를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안전을 도모하고 놀이·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울타리, 출입문, 벽 등이 있다' (M=3.07)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게임을 할 수 있고 탈 것이 다닐 수 있는 단단한 바닥이 있다' (M=3.05), '여러 유아들이 동시에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구조물이 있다' (M=2.85) 순으로 설비와 기능이 양호하다고 평가를 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놀이시설이 일반아동과 특수아동 모두를 위한 것으로 고안되어 있다' (M=1.87)와 '수직적/수평적 다양성을 고려한 공간구성을 경험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 (M=1.99)의 경우에는 설비가 없거나 기능을 못한다고 평가한 비율이 높았다. 기관유형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수직적/수평적 다양성을 고려한 공간 구성을 경험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사립 유아교육기관이 공립에 비하여 양호하다고 평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게임을 할 수 있고 탈 것이 다닐 수 있는 단단한 바닥이 있다', '여러 유아들이 동시에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구조물이 있다', '규칙 있는 게임을 할 수 있는 부드러운 바닥과 딱딱한 바닥이 있다', '안전을 도모하고 놀이·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울타리, 출입문, 벽 등이 있다', '실외놀이를 실외로 확장시키고 햇빛, 눈과 비 등을 피할 수 있는 전이영역이 있다', '실외놀이 기구와 놀이감을 정리해 둘 창고가 있고, 아동이 스스로 꺼내고 넣기 쉽게 고안되어 있다'의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사립이 공립에 비하여 설비와 기능이 우수하다고 평가하였다.

2. 유아교육기관 실외놀이 환경 안전도 평가 현황

조사에 참여한 유아교육기관의 실외놀이 시설 설비의 안전도 현황을 파악하고 기관유형에 따른 실외놀이 시설의 안전도 평가는 〈표 4〉과 같다.

〈표 3〉 기관유형에 따른 실외놀이 시설 설비 환경구성 차이

	M(SD)				
	공립	사립	전체	t	p
게임을 하고 탈 것이 다닐 수 있는 단단한 바닥이 있다.	2.64(1.13)	3.28(.74)	3.05(.95)	3.07	.003**
극화놀이를 위한 구조물과 놀이감이 있다.	2.28(1.00)	2.67(.95)	2.53(.98)	1.92	.058
여러 유아들이 함께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복합시설이 있다.	2.53(1.03)	3.03(.95)	2.85(1.00)	2.67	.015*
기어오르거나 땅을 파며 놀 수 있는 흙더미가 있다.	2.61(.99)	2.78(1.16)	2.72(1.10)	.74	.461
그늘을 제공하고 자연학습 및 놀이가 가능한 자연영역이 있다.	2.64(.90)	2.78(1.16)	2.73(1.07)	.682	.497
수직적/수평적 다양성을 고려한 공간 구성을 경험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	2.08(.94)	1.94(.90)	1.99(.91)	-.77	.443
규칙있는 게임을 할 수 있는 부드러운 바닥과 딱딱한 바닥이 있다.	2.31(.98)	2.89(.98)	2.68(1.01)	2.87	.005**
유아의 사적 공간을 위한 조용한 구석, 놀이집 등 휴식공간이 있다.	2.61(.99)	2.92(.99)	2.81(1.00)	1.50	.138
안전을 도모하고 놀이·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울타리, 출입문, 벽 등이 있다.	2.78(1.07)	3.23(1.02)	3.07(1.06)	2.11	.037*
실내놀이를 실외로 확장시키고 햇빛, 눈과 비 등을 피할 수 있는 전이영역이 있다.	2.17(1.00)	2.83(1.05)	2.59(1.07)	3.08	.003**
실외놀이 기구와 놀이감을 정리할 창고가 있고, 유아가 스스로 꺼내고 넣기 쉽게 고안되어 있다.	2.06(.81)	2.66(1.01)	2.45(.99)	3.17	.002**
결옷걸이, 화장실, 음료수대 등이 실외에서 접근하기 쉽고, 휴식공간과 집단활동을 위한 그늘진 곳과 책걸상이 있다.	2.22(.90)	2.58(1.08)	2.45(1.03)	1.77	.081
놀이시설이 일반아동과 특수아동 모두를 위한 것으로 고안되어 있다.	1.75(.84)	1.94(.85)	1.87(.85)	1.06	.291
전체	2.33(.62)	2.74(.67)	2.59(.68)	2.91	.005**

\*p<.05 \*\*p<.01

〈표 4〉 기관유형에 따른 실외놀이 환경 안전도 차이

	M(SD)				
	공립	사립	전체	t	p
위험지역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울타리가 있다.	3.23(.94)	3.29(.96)	3.27(.95)	.305	.761
추락가능한 움직임이 많은 시설물 아래 부드러운 물질이 전 영역에 걸쳐 있다.	3.06(1.04)	3.29(.93)	3.20(.97)	1.15	.252
놀이시설의 크기가 유아의 연령에 적합하며, 오르기 기구는 2.2m를 넘지 않는다.	3.25(.87)	3.44(.74)	3.37(.79)	1.12	.266
전기, 고압선, 독극물, 깨진 병 등의 위험물로부터 안전하다.	3.44(.77)	3.61(.61)	3.55(.68)	1.12	.267
놀이시설의 연결부분에 결함이 없고 안전하다.	3.42(.73)	3.34(.77)	3.37(.75)	-.49	.623
놀이시설에 날카로운 부분, 깨지거나 빠진 부분이 없다.	3.44(.70)	3.39(.78)	3.41(.75)	-.34	.737
그네의 앉는 부분은 가볍고 부드러운 재질로 되어 있다.	2.53(1.11)	2.73(1.21)	2.66(1.17)	.81	.419
모든 안전장치는 보수가 잘 되어 있다.	2.92(.77)	3.02(.90)	2.98(.85)	.56	.579
유아의 머리가 시설물에 끼지 않도록 모든 열린 부분의 간격이 고려되어 있다.	3.11(.82)	3.26(.77)	3.20(.79)	.89	.375
시설은 구조적으로 안전, 휘거나 깨지거나 기울어진 부분이 없다.	3.39(.73)	3.28(.72)	3.32(.72)	-.70	.489
놀이시설물들은 서로 간 적절한 공간을 유지하며 설치되어 있다.	3.11(.71)	3.23(.71)	3.18(.71)	.77	.443
지하 매설 부분에 썩거나 녹슨 부분이 없다.	3.31(.83)	3.15(.81)	3.21(.82)	-.98	.329
미끄럼틀은 그늘에 설치하거나 플라스틱을 사용하여 햇볕에 노출되어 있지 않다.	2.92(.87)	3.32(.79)	3.17(.84)	2.30	.023*
놀이시설 주위에 보호용 낮은 나무나 울타리가 있다.	2.92(.97)	3.20(.84)	3.09(.90)	1.51	.134
움직임이 많은 영역에 밧줄이나 전선이 늘어뜨려져 있지 않다.	3.58(.55)	3.61(.76)	3.60(.69)	.160	.873
균형대, 쇠손잡이 등은 낮은 높이로 기준에 맞게 설치되어 있다.	3.14(.87)	3.23(.87)	3.20(.87)	.52	.608
성인의 감독을 위해 놀이터 입구에 사용자의 연령범위 등이 제시되어 있다.	2.72(1.00)	2.47(1.13)	2.56(1.08)	-1.12	.265
돌출부이나 서로 얽힐 수 있는 위험이 없다.	3.28(.81)	3.39(.73)	3.35(.76)	.68	.496
발이 걸릴 위험요소가 없다.	3.33(.68)	3.44(.72)	3.40(.70)	.70	.489
전체	3.17(.54)	3.29(.48)	3.24(.50)	1.01	.312

\*p<.05

〈표 4〉에 의하면 유아교육기관 전체의 실외놀이 시설 설비의 안전도 평가에 있어서 평균 3.24로 나타나 대체적으로 보통수준 이상으로 안전도가 평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움직임이 많은 영역에 밧줄이나 전선이 늘어뜨려져 있지 않다' (M=3.60)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기, 고압선, 독 물질, 깨진 병 등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다' (M=3.55), '놀이시설에 날카로운 부분, 깨지거나 빠진 부분이 없다' (M=3.41), '발이 빠질만한 위험요소가 없다' (M=3.40)의 순으로 안전도 평가가 높게 나타난 반면에 '성인의 감독을 위해 놀이터 입구에 사용자의 연령범위 등이 제시되어 있다' (M=2.56)가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그네의 앉는 부분은 가볍고 부드러운 재질로 되어 있다' (M=2.66), '모든 안전장치는 보수가 잘 되어 있다' (M=2.98)의 순으로 안전도 평가가 비교적 낮게 평가되었다. 기관유형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미끄럼틀을 그늘에 설치하거나 플라스틱 재질을 사용한다'의 항목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사립이 공립에 비해 안전도를 높

게 평가하였으며 다른 항목에서는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으로 유아교육기관의 실외놀이 시설 보유 개수에 따른 안전도 평가 차이는 〈표 5〉와 같다. 놀이시설 보유개수 분석 시 유원장 기본 놀이시설 8개를 구분하고 이를 포함하여 물놀이와 모래놀이 영역을 추가한 14개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전체적으로 놀이시설 보유의 개수가 많은 유치원일수록 실외놀이 시설 안전도 평가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위험지역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울타리가 있다', '움직임이 많은 시설물 아래 부드러운 물질이 전 영역에 걸쳐 있다', '놀이시설에 날카로운 부분, 깨지거나 빠진 부분이 없다', '시설은 구조적으로 안전, 휘거나 깨지거나 기울어진 부분이 없다', '전기, 고압선, 독물질, 깨진 병 등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다', '그네에 앉는 부분은 가볍고 부드러운 재질로 되어 있다', '움직임이 많은 영역에 밧줄이나 전선이 늘어뜨려져 있지 않다'의 항목에서 실외놀이 시설 개수가 많을수록 안전에 대한 고려가 통계적으로 유

〈표 5〉 놀이시설 보유개수에 따른 실외놀이 환경 안전도 차이

	M(SD)				
	8개이하	9~13개	14개이상	F	p
위험지역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울타리가 있다.	2.78(1.10) <sup>a</sup>	3.53(.81) <sup>b</sup>	3.46(.74) <sup>b</sup>	6.83	.002**
추락가능한 움직임이 많은 시설물 아래 부드러운 물질이 전 영역에 걸쳐 있다.	2.72(1.08) <sup>a</sup>	3.36(.83) <sup>b</sup>	3.52(.83) <sup>b</sup>	6.62	.002**
놀이시설의 크기가 유아의 연령에 적합하며, 오르기 기구는 2.2m를 넘지 않는다.	2.97(.93) <sup>a</sup>	3.47(.65) <sup>b</sup>	3.66(.61) <sup>b</sup>	7.05	.001**
전기, 고압선, 독물질, 깨진 병 등의 위험물로부터 안전하다.	3.31(.82) <sup>a</sup>	3.75(.50) <sup>b</sup>	3.55(.63) <sup>ab</sup>	3.74	.027*
놀이시설의 연결부분에 결함이 없고 안전하다.	3.13(.83)	3.44(.73)	3.52(.63)	2.50	.088
놀이시설에 날카로운 부분, 깨지거나 빠진 부분이 없다.	3.13(.75) <sup>a</sup>	3.57(.74) <sup>b</sup>	3.50(.69) <sup>b</sup>	3.50	.034*
그네의 앉는 부분은 가볍고 부드러운 재질로 되어 있다.	2.18(1.22) <sup>a</sup>	2.67(1.10) <sup>ab</sup>	3.17(1.00) <sup>b</sup>	5.75	.004**
모든 안전장치는 보수가 잘 되어 있다.	2.69(.82)	3.06(.89)	3.17(.76)	2.90	.060
유아의 머리가 시설물에 끼지 않도록 모든 열린부분의 간격이 고려되어 있다.	3.14(.81)	3.42(.73)	3.31(.71)	2.39	.061
시설은 구조적으로 안전, 휘거나 깨지거나 기울어진 부분이 없다.	2.97(.71) <sup>a</sup>	3.51(.61) <sup>b</sup>	3.45(.74) <sup>b</sup>	6.05	.003**
놀이시설물들은 서로 간 적절한 공간을 유지하여 설치되어 있다.	2.94(.72)	3.25(.73)	3.34(.61)	2.96	.057
지하 매설 부분에 썩거나 녹슨 부분이 없다.	3.03(.87)	3.25(.77)	3.31(.81)	.99	.376
미끄럼틀은 그늘에 설치하거나 플라스틱을 사용하여 햇볕에 노출되어 있지 않다.	3.00(.97)	3.31(.83)	3.14(.69)	1.16	.318
놀이시설 주위에 보호용 낮은 나무나 울타리가 있다.	2.81(.90)	3.19(1.01)	3.29(.66)	2.53	.085
움직임이 많은 영역에 밧줄이나 전선이 늘어뜨려져 있지 않다.	3.34(.79) <sup>a</sup>	3.77(.55) <sup>b</sup>	3.66(.67) <sup>ab</sup>	3.56	.032*
균형대, 쇠손잡이 등은 낮은 높이로 기준에 맞게 설치되어 있다.	2.87(.92) <sup>a</sup>	3.39(.84) <sup>b</sup>	3.31(.76) <sup>b</sup>	3.51	.034*
성인의 감독을 위해 놀이터 입구에 사용자의 연령범위 등이 제시되어 있다.	2.53(1.02)	2.33(1.15)	2.86(1.06)	1.94	.149
돌출부분이나 서로 엮힐 수 있는 위험이 없다.	3.16(.81)	3.36(.80)	3.52(.63)	1.76	.179
발이 걸릴 위험요소가 없다.	3.25(.80)	3.44(.73)	3.48(.51)	1.00	.371
전 체	2.91(.56) <sup>a</sup>	3.39(.40) <sup>b</sup>	3.39(.41) <sup>b</sup>	10.08	.000**

<sup>a,b</sup>: 다른 문자끼리 집단 간 차이를 나타냄.

\*p<.05 \*\*p<.01

〈표 6〉 교사 1인당 유아의 비율에 따른 실외놀이 환경 안전도 차이

	M(SD)				
	15인 이하	16~29인	30인 이상	F	p
위험지역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울타리가 있다.	3.52(.77)	3.30(.94)	2.92(1.09)	2.89	.060
추락가능한 움직임이 많은 시설물 아래 부드러운 물질이 전 영역에 걸쳐 있다.	3.35(.95)	3.30(.91)	2.89(1.05)	2.02	.138
놀이시설의 크기가 유아의 연령에 적합하며, 오르기 기구는 2.2m를 넘지 않는다.	3.61(.62) <sup>a</sup>	3.45(.68) <sup>a</sup>	2.96(.98) <sup>b</sup>	5.75	.004**
전기, 고압선, 독극물, 깨진 병 등의 위험물로부터 안전하다.	3.84(.37) <sup>a</sup>	3.58(.64) <sup>a</sup>	3.19(.83) <sup>b</sup>	7.74	.001**
놀이시설의 연결부분에 결함이 없고 안전하다.	3.55(.51)	3.40(.78)	3.11(.89)	2.59	.080
놀이시설에 날카로운 부분, 깨지거나 빠진 부분이 없다.	3.55(.57) <sup>a</sup>	3.53(.75) <sup>a</sup>	3.04(.84) <sup>b</sup>	4.35	.016*
그네의 앉는 부분은 가볍고 부드러운 재질로 되어 있다.	2.84(1.24) <sup>a</sup>	2.89(1.09) <sup>a</sup>	2.08(1.04) <sup>b</sup>	4.52	.013*
모든 안전장치는 보수가 잘 되어 있다.	3.23(.80) <sup>a</sup>	3.00(.78) <sup>ab</sup>	2.67(.92) <sup>b</sup>	3.30	.041*
유아의 머리가 시설물에 끼지 않도록 모든 열린 부분의 간격이 고려되어 있다.	3.45(.68)	3.23(.70)	3.19(.93)	3.95	.063
시설은 구조적으로 안전, 휘거나 깨지거나 기울어진 부분이 없다.	3.35(.71)	3.41(.68)	3.15(.78)	1.04	.357
놀이시설물들은 서로 간 적절한 공간을 유지하며 설치되어 있다.	3.26(.68) <sup>a</sup>	3.33(.57) <sup>a</sup>	2.89(.85) <sup>b</sup>	3.47	.035*
지하 매설 부분에 썩거나 녹슨 부분이 없다.	3.26(.77)	3.20(.85)	3.15(.83)	.12	.891
미끄럼틀은 그늘에 설치하거나 플라스틱을 사용하여 햇볕에 노출되어 있지 않다.	3.48(.72) <sup>a</sup>	3.13(.83) <sup>ab</sup>	2.85(.88) <sup>b</sup>	4.42	.015*
놀이시설 주위에 보호용 낮은 나무나 울타리가 있다.	3.43(.77) <sup>a</sup>	3.08(.93) <sup>ab</sup>	2.74(.86) <sup>b</sup>	4.59	.013*
움직임이 많은 영역에 밧줄이나 전선이 늘어뜨려져 있지 않다.	3.74(.63) <sup>a</sup>	3.70(.56) <sup>a</sup>	3.27(.83) <sup>b</sup>	4.39	.015*
균형대, 쇠손잡이 등은 낮은 높이로 기준에 맞게 설치되어 있다.	3.29(.86) <sup>a</sup>	3.37(.71) <sup>a</sup>	2.85(.99) <sup>b</sup>	3.21	.045*
성인의 감독을 위해 놀이터 입구에 사용자의 연령범위 등이 제시되어 있다.	2.68(1.17)	2.45(1.11)	2.59(.97)	.39	.675
돌출부나 서로 얽힐 수 있는 위험이 없다.	3.55(.51) <sup>a</sup>	3.45(.75) <sup>a</sup>	2.96(.90) <sup>b</sup>	5.23	.006**
발이 걸릴만한 위험요소가 없다.	3.45(.57) <sup>a</sup>	3.60(.55) <sup>a</sup>	3.04(.90) <sup>b</sup>	5.89	.004**
전 체	3.40(.35) <sup>a</sup>	3.28(.53) <sup>a</sup>	2.97(.56) <sup>b</sup>	5.09	.008**

<sup>a,b</sup> 다른 문자끼리 집단 간 차이를 나타냄.  
\* $p < .05$  \*\* $p < .01$

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실외놀이 시 교사 1인당 유아의 비율에 따른 실외놀이 시설의 안전도 평가는 〈표 6〉와 같다. 먼저 전체적으로 실외놀이 환경의 안전도 평가에서는 교사 1인당 유아 비율이 높을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안전에 대한 평가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놀이시설의 크기가 유아의 연령에 적합하며, 오르기 기구는 2.2m를 넘지 않는다’, ‘전기, 고압선, 독극물, 깨진 병 등의 위험물로부터 안전하다’, ‘놀이시설에 날카로운 부분, 깨지거나 빠진 부분이 없다’, ‘그네의 앉는 부분은 가볍고 부드러운 재질로 되어 있다’, ‘놀이시설물들은 서로 간 적절한 공간을 유지하도록 설치되어 있다’, ‘움직임이 많은 영역에 밧줄이나 전선이 늘어뜨려져 있지 않다’, ‘균형대, 쇠 손잡이들은 낮은 높이로 기준에 맞게 설치되어 있다’, ‘돌출부나 서로 얽힐 수 있는 위험이 없다’, ‘발이 빠질만한 위험요소가 없다’의 항목에 있어서 교사 1인당 유아의 비율이 ‘15인 이하’와 ‘16-29인’ 집단 대비 ‘30인 이

상’인 집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안전에 대한 고려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든 안전장치는 보수가 잘 되어 있다’, ‘미끄럼틀을 그늘에 설치하거나 플라스틱 재질을 사용 한다’, ‘놀이시설 주위에 보호용 낮은 나무나 울타리가 있다’의 항목에 있어서는 교사 1인당 유아의 비율이 ‘15인 이하’인 집단과 ‘30인 이상’인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 3. 유아교육기관의 실외놀이 시설 설비의 안전관리 현황

실외놀이 시설설비의 안전점검 현황을 알아본 결과 〈표 7〉과 같다. 우선 실외놀이 시설 점검여부를 살펴보면, ‘정기적으로 실시함’이 56.6%로 가장 많았으며, ‘놀이 전이나 놀이시간에 수시로 함’이 35.4%으로 나타난 반면, ‘거의하지 않음’은 8.1%인 것으로 나타나 대체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유형에 따라 공립의 경우 ‘정기적으로 실시함’(82.9%)의 비율이, 사립의 경우에는 ‘놀이 전이나 놀이시간에 수시로 함’(45.3%)의 비율이 다른 집단 대

〈표 7〉 실외놀이 시설 안전 점검

		사립	공립	전체	N(%)
점검여부	정기적으로함	27(42.2)	29(82.9)	56(56.6)	16.07***
	놀이시 수시로함	29(45.3)	6(17.1)	35(35.4)	
	거의하지않음	8(12.4)	0(0)	8(8.1)	
점검횟수	매일 점검	9(33.3)	8(27.6)	17(30.4)	12.00*
	1주에 한 번	9(33.3)	3(10.3)	12(21.4)	
	2주에 한 번	2(7.4)	0(0.0)	2(3.6)	
	1개월에 한 번	6(22.2)	18(62.1)	24(42.9)	
	1년에 한 번	1(3.7)	0(0)	1(1.8)	
점검방법	안전점검표에 따라 점검	15(24.2)	25(73.5)	40(41.7)	22.48***
	안전관리전문가가 점검	4(6.5)	0(0)	4(4.2)	
	교사나 관리자가 육안으로 점검	43(69.4)	9(26.5)	52(54.2)	
담당자	담당 교사	9(14.1)	17(50.0)	26(26.5)	20.76***
	각반 교사	28(43.8)	17(44.1)	43(43.9)	
	안전관리 전문가	9(14.1)	1(2.9)	10(10.2)	
	원장이나 원감	18(28.1)	1(2.9)	19(19.4)	

\* $p < .05$  \*\* $p < .01$  \*\*\* $p < .001$ 

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한편, 정기적으로 실시한다고 응답한 경우 점검횟수를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1개월에 한번'이 42.9%로 가장 많았으며, '매일 점검'이 30.4%, '1주일에 한번'이 21.4% 등의 순으로 정기적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유형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공립의 경우 '1개월에 한번'(62.1%)의 비율이 높은 반면, 사립은 '1주일에 한번'(33.3%)의 비율이 다른 집단 대비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실외놀이 시설 점검방법으로는 '교사나 관리자가 육안으로 점검'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4.2%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안전점검표에 따라 점검'이 41.7%, '안전관리 전문가가 함'이 4.2%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관유형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사립의 경우에는 '교사나 관리자가 육안으로 점검'(69.4%)의 비율이 높았으며, 공립은 '안전점검표에 따라 점검'(73.5%)의 비율이 다른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실외놀이 시설·설비의 안전점검 담당자로는 '각 반 교사가 점검'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43.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담당교사가 있음'이 26.5%, '원장이나 원감'이 19.4%였으며, '안전관리 전문가가 점검'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10.2%에 불과하였다. 기관유형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공립의 경우 '담당교사가 있음'(50.0%)의 비율이 높은 반면, 사립은 '원장이나 원감'(28.1%)의 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외놀이 안전사고에 대한 교사의 인식을 알아본 결과 〈표 8〉와 같다. 교사는 실외놀이 안전사고 발생 원인으로 '유아의 불안정한 행동 및 부주의'라고 응답한 비율이 57.1%로 가장 많았으며, '시설물의 결함이나 구조적 원인'이 22.4%, '교사의 지도 및 감독 소홀'이 10.2%, '또래집단이나 타인에 의한 피해'가 10.2%라고 인식하였다. 교사들은 안전사고처리에 따른 관련 법령 및 제도에 대한 인지여부에 관해서는 33.3%만이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대부분의 교사는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66.7%). 기관 유형에 따른 차이를 보면 공립은 '알고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48.6%로 사립의 25.0%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유아교육기관이 가입한 안전사고 보험은 '일반상해보험'에 56.0%, '학교 안전공제회'에 44.0%가 가입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립의 경우 97.1%가 '학교 안전공제회'에 가입하였다고 응답한 반면, 사립의 경우 89.3%가 '일반상해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안전사고 처리절차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여부는 유아교육기관의 68.0%가 마련되어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사고 기록일지 비치여부는 74.7%가 '비치해 놓았다'라고 응답한 반면, '비치해 놓지 않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25.3%로 나타났다.

유아교육기관에서 실외놀이 안전사고 예방교육 현황을

〈표 8〉 실외놀이시설 안전사고 대책

		사립	공립	전체	N(%)
발생사고원인	시설물결함이나 구조적원인	10(15.9)	12(34.3)	22(22.4)	5.47
	유아의 행동부주의	41(65.1)	15(42.9)	56(57.1)	
	교사의 지도 및 감독소홀	6(9.5)	4(11.4)	10(10.2)	
	또래집단	6(8.5)	4(11.4)	10(10.2)	
안전사고처리관련 법령 및 제도인지 여부	예	16(25.0)	17(48.6)	33(33.3)	5.66*
	아니오	48(75.0)	18(51.4)	66(66.7)	
가입보험종류	학교 안전공제회	6(10.7)	34(97.1)	40(44.0)	65.31***
	일반상해보험	50(89.3)	1(2.9)	51(56.0)	
안전사고처리절차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여부	예	43(66.2)	25(71.4)	68(68.0)	.29
	아니오	22(33.8)	10(28.6)	32(32.0)	
기록일지여부	있음	50(78.1)	24(68.6)	74(74.7)	1.09
	없음	14(21.9)	11(31.4)	25(25.3)	

\*p<.05 \*\*\*p<.001

〈표 9〉 실외 놀이 안전사고 예방교육 현황

		사립	공립	전체	N(%)
부모교육방법	부모 교육시 활용	11(18.0)	4(11.8)	15(15.8)	1.90
	부모대상 안전교육 공개 수업	2(3.3)	0(0)	2(2.1)	
	가정통신문 활용	48(78.7)	30(82.1)	78(82.1)	
정기적 예방 교육 실시여부	실시	53(82.8)	29(85.3)	82(83.7)	.10
	미실시	11(17.2)	5(14.7)	16(16.3)	
예방 교육내용	실외놀이시설 사용 안전교육	30(26.5)	13(25.0)	43(26.1)	(중복응답)
	위험상황의 사례제시와 훈련통한 대처방법	37(32.7)	15(28.8)	52(31.5)	
	체험중심 안전교육	25(22.1)	19(36.5)	44(26.7)	
	자기보호 안전교육	21(18.6)	5(9.6)	26(15.8)	

알아본 결과 〈표 9〉와 같다

실외놀이 안전에 대한 부모교육 방법을 알아본 결과 부모 교육 시 활용이 15.8%, 부모대상 안전교육 공개수업이 2.1%, 부모교육 실시 방법으로 가정통신문이 82.1%등으로 나타났다. 유아교육기관에서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83.7%가 '정기적으로 실시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안전사고 예방교육의 내용을 중복응답으로 알아본 결과, '실외놀이시설 사용 안전교육'이 26.1%, '위험상황의 구체적인 사례 제시와 훈련을 통한 대처방법 지도'가 31.5%, '체험중심을 통한 안전교육'이 26.7%, '자기보호 안전교육'이 15.8%로 나타났다.

#### IV. 요약 및 논의

본 연구는 유아교육기관의 실외놀이 시설 보유와 설비의 환경구성 실태를 알아보고 실외놀이 환경의 안전도를 평가와 실외놀이 시설 안전관리 현황을 조사하여 실외놀이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으며 연구문제에 따라 나타난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이를 토대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교육기관의 실외놀이 시설 보유를 보면 사립유치원이 11.24개, 공립이 9.57개로 사립유치원이 실외놀이 시설개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치원에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실외놀이 시설은 미끄럼틀(91.0%), 종합놀이기구

(82.0%)이었으며 놀이 영역에서는 모래놀이장(76%)으로 나타났다. 공립은 종합놀이기구와 모래놀이터를, 사립은 그네와 물놀이 시설을 다른 집단 대비 보유비율이 높았다. 이는 대부분 유아교육기관은 유아용 종합놀이 기구와 모래놀이 시설을 가장 많이 설치하였으며 사립이 공립에 비해 다양한 실외 놀이시설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선행연구(고미경, 류숙희, 나 정, 2006) 결과와 맥락을 같이한다. 즉 공립은 대부분의 유아교육기관에서 보유한 종합놀이기구와 모래놀이장을 보유한 비율이 높았으나, 사립은 공립에서 많이 보유하지 않은 물놀이영역, 그네 등의 다양한 시설 보유 비율이 높은 것으로 여겨진다. 기타 실외놀이 시설로는 식물재배장(55.0%)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었으며 사립(66.2%)이 공립에(34.3%)비해 보유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식물재배장을 제외한 다른 기타 실외놀이 시설은 전반적으로 보유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부분 유아교육기관에서 실외놀이 시설은 대 근육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생물체를 포함한 자연 관찰 학습이나 정적인 놀이 활동을 위한 공간 배려가 부족하다는 선행연구 결과(김수경, 2000; 노인숙, 2001; 이숙재 이봉선, 2007; 황양선, 2003)와 일치한다. 실외놀이터는 신체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곳으로 유아들이 쉽게 피로를 느끼게 되므로 정적인 활동과 휴식을 위한 공간을 설치하여 놀이 활동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유아교육기관 실외놀이 시설 설비의 환경구성 실태를 조사한 결과 4점 만점에 2.59로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외놀이 환경 구성에서 '안전을 도모하고 놀이·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울타리, 출입문, 벽 등이 있다(3.07)', '게임을 할 수 있고 탈 것이 다닐 수 있는 부드러운 바닥과 단단한 바닥이 있다(3.05)' 등은 비교적 설비와 기능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반면에 '놀이시설이 일반아동과 특수아동 모두를 위한 것으로 고안되어 있다(1.87)'의 항목에서는 설비가 없거나 기능을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부분의 유아교육기관에서 장애유아 통합교육을 위한 실외놀이 시설 설비를 갖추지 않았아 제 기능을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장애 영유아 통합을 위한 교육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를 고려한 실외놀이 환경 구성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기관유형에 따른 실외놀이 시설 환경구성을 보면 사립(2.74)이 공립(2.33)에 비해 실외놀이 시설 설비의 기능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립유치원은 공립에 비해 실외놀이 시설의 환경구성에서 '게임을 하고 탈 것이 다닐 수 있는 단단한 바닥이 있다'와 '규칙 있는 게임을 할 수 있는 부드러운 바닥과 딱딱한 바닥이 있다'의 바닥재의 시설과 설비의 기능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내 놀이를 실외로 확장시키고 햇빛, 비, 눈을 피할 수 있는 전이 영역이 있

다'와 '실외 놀이 기구와 놀이기구를 정리할 창고가 있다'의 항목에서도 설비와 기능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립유치원이 다양한 바닥재를 구성한 실외시설 설비 기능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교실에서 실외 놀이 공간으로 직접 드나들 수 있는 전이 공간인 테라스 설치와 놀이기구를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확보한 비율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보면, 공립유치원이 실외놀이 환경구성을 위한 시설과 설비가 사립에 비해 빈약한 것을 의미한다. 공립유치원의 종일제 운영이 확대되어 어린 유아의 취원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아 발달 수준에 적합한 실외환경 구성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는 것은 통합적 유아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반드시 필요하다. 실외놀이 환경은 놀이시설물의 보유도 중요하지만 각 시설마다 설비를 갖추어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환경적 요소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실외놀이 시설만 구비되고 이에 따른 환경구성이 미비하면 시설이 제 역할을 하기 힘들어 실외놀이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없다. 더불어 실외놀이의 학습효과를 최대화 하기위하여 실외놀이 시설을 위한 공간의 충분한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 공립 유치원은 초등학교의 운동장을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유아의 발달에 적합하고 안전하게 도전할 수 있는 실외놀이 시설과 설비를 제대로 갖춘 환경구성을 마련한다면 실외놀이가 활성화될 수 있다. 이는 실외 놀이기구 자체는 안전하나 실외놀이 환경을 위한 부대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아 안전사고에 위험이 있다고 지적한 연구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김혜숙, 1998; 나옥인, 2000; 홍길희, 2002).

셋째, 전체 실외놀이 환경의 안전도는 4점 만점에 평균 3.24로 나타나 대체적으로 보통수준 이상으로 고려한다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나 유아교육기관 실외놀이 안전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았으며 기관 유형에 따른 안전도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전체기관의 안전도를 세부항목별 보았을 때, '성인의 감독을 위해 놀이터 입구에 사용자의 연령범위 등이 제시되어 있다'의 문항에서 가장 낮은 안전도 평가의 결과는 각 실외놀이 시설물에 사용자 연령 범위를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외 놀이 안전사고는 다양한 연령층의 유아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놀이 시설물에서 자주 발생한다(이숙재, 2004)는 연구 결과의 맥락에서 분석할 수 있다. 실외놀이 공간은 발달 수준이 다른 영유아들이 함께 이용할 때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유아의 신체 크기나 운동발달을 고려한 연령에 적합한 놀이시설 설비를 마련하여 실외 환경을 구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실외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놀이시설에 따라 연령을 제한하는 것이 요구되며(김혜숙, 1998; 나옥인, 2000; 신동주, 2004) 안전한 실외 환경을 위하여 각 놀이 시설의 사용자 연령 기

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안전도 평가에서 '그네의 앉는 부분은 가볍고 부드러운 재질로 되어 있다'의 항목에서 낮게 나온 본 연구 결과는 그네 의자를 고무 캔버스 천과 같은 부드러운 소재로 만들도록 규정하고 있는 외국의 경우에 비추어 볼 때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나무나 쇠와 같은 단단한 소재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네는 안전사고 위험이 많은 놀이시설로 유아들이 움직이는 그네 영역을 확실히 인식하여 충돌하는 일이 없도록 타이어나 나무 등으로 낮은 울타리를 만들어야 한다(신동주, 2004; 소비자 보호원, 1994)는 안전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제시된 유아 놀이시설의 안전기준은 우리나라 유아를 대상으로 제시된 것이기 보다 주로 외국의 안전기준이나 문헌에서 제시된 기준을 인용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유아의 신체치수 및 사회적 환경 요인을 고려한 구체적 안전기준이 제시되어 사고 예방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넷째, 본 연구결과에 의하며 유아교육기관의 안전도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기관유형보다는 놀이시설 보유 개수와 교사 1인당 유아의 비율의 중요성이 나타났다. 즉, 유아교육기관에서 실외놀이 시설 보유수가 많을수록, 교사 1인당 유아의 비율이 낮을수록 실외놀이 환경안전도 평가에서 안전에 대한 고려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아교육기관에서 실외공간에 다양한 놀이시설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기관의 규모와 관련성이 있으며 기관의 규모가 클수록 유아교육기관의 안전 환경운영에 관심이 많아 환경의 안전성 수준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홍길희, 2003)의 맥락에서 논의 해볼 수 있다. 실외놀이 시설을 많이 보유할수록 학급 규모가 클 가능성이 많으며 이는 기관의 안전 환경 운영에 관심이 많아 실외놀이 환경 구성의 안전도에 반영된 것으로 해석되어질 수 있다. 또한 교사 1인당 유아비율이 낮은 것은 교육의 질뿐 만 아니라 실외놀이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이다. 실외놀이에서 교사의 중요한 역할은 유아의 안전지도이며 이는 실외놀이 시설의 안전도 및 지속적인 안전점검 실시에 반영된 것으로 여겨진다. 실외놀이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교사 대 유아 비율을 낮추어 교사가 실외놀이 시 수시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실외 안전지도에 관심을 갖고 유아와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실외놀이 시설 보유 개수와 교사 대 유아의 비율 등의 구체적 변인이 실외놀이 환경의 안전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해준다.

다섯째, 실외놀이 시설 안전점검 실태를 알아본 결과 정기적으로 실시(56.6%)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공립은 정기적으로 사립은 놀이 전이나 놀이시간에 수시로 실시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정기 점검횟수는 1개월에 한번이 가장 많았으며, 점검 방법으로는 교사가 육안으로 점검하는 경

우와 교사가 안전점검 표에 따라 점검하는 것이 많이 나타났다. 안전점검 담당자는 교사가 대부분이었으며 안전관리 전문가의 점검은 낮았다. 교사는 안전사고 처리에 따른 관련 법령 제도에 대해 33.3%만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보면 대부분의 유아교사는 실외놀이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안전사고처리에 대한 관련 법령과 제도는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교사를 위한 실외놀이 관련 안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재교육에 참여시키는 것이 요구된다. 그동안 실시된 교사의 안전 연수는 대부분 교통안전, 놀이안전, 응급처치 관련 내용을 주로 다루어 왔으며 실외놀이 시설 설비 안전은 다루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실외놀이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교사의 재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사고 처리절차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유아교육기관에서는 안전점검 기록부, 응급 시 연락처, 안전사고 기록부, 유아의료 기록부등을 구비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상과 같이 유아교육기관에서 실외놀이 활성화를 위하여 실외놀이 시설 설비의 환경구성, 실외환경 안전도, 안전점검 현황을 알아본 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실외놀이 시설 설비의 정기 점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일을 의무화해야 하며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구체적인 실외 놀이시설 안전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놀이시설의 안전 기준이 마련되어 있어도 유아의 안전을 위한 법적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면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교육행정 기관에서 놀이시설의 안전 기준을 설정·제정하고 안전을 전담하는 담당 장학사 및 안전을 전담하는 전문 기관을 지정·운영하여 사전뿐만 아니라 사후 유아 안전사고 관리에 노력해야 한다. 둘째, 유아교육기관 교사를 대상으로 실외 놀이 시설 안전 점검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개발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이는 국가에서 실시하는 유아 안전을 위한 교원 연수 과정에 실외 놀이 시설 안전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켜 안전사고의 위험을 줄여야 한다. 셋째, 유아교육기관에서 유아교육과정에 실외놀이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실외놀이 시설 설비 및 공간구성과 실외환경 안전도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특히 현대사회의 움직임이 제한된 정적인 주거활동 문화는 유아에게 유아교육기관에서의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실외놀이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따라서 실외놀이 공간의 1인당 면적 기준을 의무 사항으로 설정하는 등 실외놀이 시설과 환경구성 및 안전도에 대한 많은 관심과 연구가 요구된다. 특히 사립에 비해 공립유치원의 실외놀이 시설과 환경구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유아들이 전용할 수 있는 단독 실외 놀이터가 마련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공립은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고 초등학교 운동장

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넓은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 것은 사립에 비해 커다란 혜택이다. 그러나 유아의 흥미와 신체 크기 및 운동능력을 고려한 적합한 놀이 시설과 설비를 다양하게 갖추지 못하여 실외놀이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 형편이다. 공립유치원의 종일제 운영이 확대되면서 교실 가까이 안전하고 다양한 실외놀이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유아교육기관의 놀이시설 중 종합 놀이 기구와 모래놀이영역에 의존하는 경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 놀이 기구는 유아들이 좋아하고 신체운동 발달에 도움이 되는 시설이지만 실내의 정적인 놀이 활동이 실외에서도 연장 가능하도록 환경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실외놀이 환경 구성 시 동식물의 생물체를 포함한 자연적인 요소와 조용한 쉼터 등이 구비되어 유아들이 자연 관찰을 통해 다양한 감각을 자극받을 수 있고 정적인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에 대한 배려가 요구된다. 다섯째, 모든 유아교육기관 실외놀이 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놀이시설 생산업체에서는 사용 시 처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경고, 사용 설명 및 주의 표시 등과 같은 안전표시 제공을 의무화하여 유아 및 교사들의 안전사고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첫째, 본 연구는 경기도 대도시인 S시의 유치원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므로 본 연구 결과를 전국적으로 일반화 하는데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실외놀이 시설 설비와 환경구성은 유아교육기관의 지역적인 특성에 따라 다르므로 이를 고려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실외놀이 시설 설비 환경 안전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실외놀이 보유개수와 교사 대 유아 비율의 변인이 제시되었는데 이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심층적인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는 질문지법을 사용하여 실외놀이 환경의 질적인 측면을 조사하였으나 좀 더 실증적인 자료 수집을 위하여 관찰법을 통한 실외놀이 시설 관련 자료수집이 필요하다.

## ■ 참고문헌

- 고미경, 류숙희, 나정(2006). 유아교육기관의 실외놀이 시설과 설비 실태에 대한 평가 분석. *한국생활과학회지*, 15(4), 675-689.
- 고영자(1998). 어린이집 실외놀이 공간에 대한 실태조사: 구립/민간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교육인적자원부(2006). *유치원 시설 안전관리 매뉴얼*.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 구자옥(1992). 유아교육시설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수경(2000). 유아교육기관의 실외놀이 실태에 관한 양적·질적 분석.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아연(1997). 어린이집 실외놀이 공간 설계모형 개발 및 적용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은미(2005). 영유아교육기관의 실외놀이 운영실태 및 교사의 인식. *아동교육*, 14(2), 271-286.
- 김정수(2002). 유아교육기관 실외놀이의 시설 및 운영실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형미(1998). 유아기질에 따른 실외놀이 형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혜숙(1998). 유아교육기관 실외놀이 시설의 안전실태조사 및 연구. *경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나옥인(2000). 유아교육기관 실외놀이 시설의 안전실태에 관한 연구. *호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노인숙(2001). 산본지역 유아교육기관의 실외놀이 활용 실태조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노현주(1994). 실외놀이 유형에 따른 유아의 놀이형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류경화(2005). 유아교육기관의 실외놀이시설 및 설비에 관한 조사연구. *유아교육논집*, 14(1), 85-100.
- 박수경(1997). 유아교육기관 실외놀이 환경에 관한 조사연구.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변혜령, 최목화(2006). 서울지역 어린이집의 실외놀이 환경구성과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15(2), 209-225.
- 소애선(2000). 유아교육기관 실외놀이 환경의 질적 수준에 관한 연구. *서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신동주(1996). 유아교육기관 실외놀이 환경의 질에 관한 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8, 53-70.
- 신동주(2004). 유아교육기관의 실외놀이활동 실태 및 교사의 실외놀이에 대한 인식. *유아교육연구*, 24(6), 299-324.
- 심운숙(1994). 유아교육기관의 실외환경에 관한 조사연구.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유정선, 엄정애(2004). 서울시 사립유아교육기관의 실외놀이 실태와 교사의 인식. *교육과학연구*, 35(1), 39-57.
- 이숙재(1999). 유아를 위한 놀이의 이론과 실제. 서울: 창지사.
- 이숙재, 이봉선(2007). 어린이집 실외놀이 공간 구성에 대한 영아와 교사의 바램. *유아교육연구*, 27(2), 77-98.
- 이영환, 임옥희, 원은실(2004). 유아교사의 안전인식과 유아교육기관의 안전교육 실태. *한국가정과학회지*, 7(3), 59-71.

- 이은숙, 김정남(2003). 도시지역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기관 어린이의 안전사고 발생실태. *한국보건간호학회지*, 15(2), 88-101.
- J. L Frost, 이은해역(1997). 놀이환경: 놀이의 중요성과 창의적인 실외환경의 구성. 삼성복지재단 제5회 국제학술대회: 어린이와 환경, 46-52.
- 정인자(1997). 보육시설 안전사고 실태 및 안전보육환경 평가.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조경희(1999). 실내의 놀이환경에 따른 유아의 놀이형태에 관한 연구.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조순희(2002). 어린이집의 안전사고 현황과 대책에 관한 조사 연구.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지혜련, 김은기(1990). 유아의 실외놀이의 이론과 실제. 서울: 교문사.
- 차경순, 유연옥(2006). 공립유치원 교사의 유아안전 교육에 대한 실천. *아동교육*, 15(2), 163-178.
- 최명해(2001). 유치원 안전사고의 환경적인식과 안전교육에 대한 실현 분석.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한국소비자보호원(1994). 영유아 보육시설 안전실태 조사결과. 서울: 한국소비자보호원.
- 홍길희(2002). 유아교육기관 실외놀이 환경의 안전도에 관한 연구. *동남보건대학논문집*, 20(2), 353-364.
- 홍혜경, 지성애, 김영옥(1998). 영유아 보육시설의 안전사고 현황. *한국영유아보육학*, 13, 315-340.
- 황양선(2003). 유아교육기관 교사의 실외놀이에 대한 인식 및 운영실태. 성결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Baker, K. R.(1996). *Let's play outdoors*, Washington, DC.: NAEYC.
- Bredenkamp. S., & Copple. C.(1997). *Developmental Appropriate Practice in Early Childhood Programs Revised Edition*. New York: NAEYC.
- Cullen, J.(1994). Preschool children's use and perceptions of outdoor play areas.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89, 45-56.
- Fenson. L., & Ramsey. D. S.(1980). Decentration and Integration of the Child's Play in the Second Year. *Child Development*, 51, 171-178.
- Frost. J. L.(1992). *Play and Playscapes*. New York: Delmar.
- Frost, J. L.(1997). *Nature and importance of play*. Paper presented at the 5th International Conference of Samsung Welfare Foundation.
- Frost, J., Shin, D., & Jacobs, P.(1998). Play environments and children's play. In O. Saracho & B. Spodek (Eds.), *Multiple perspectives on play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lbany, 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Frost, L. J. E. V., & Beach, D. M. (Eds.)(1997). *Children and youth: An interdisciplinary perspective*, Arlington, TX: University of Texas, 1997.
- Gardner, D. B.(1965). *Development in Early Childhood*. New York : Harper & Row, 143.
- Hart, C. H.(1993). Introduction toward a further understanding of children's development on playgrounds. In C. H. Hart, *Children on playgrounds research perspectives and applications (pp. 1-12)*. Albany, 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 Johnson, J. E., Christie, J. F., & Yawkey, T. D.(1999). *Play and early childhood education*. New York: Longman.
- Shin, D. J., & Frost, J. L.(1995). Preschool children symbolic play indoors and outdoors. *International Play Journal*, 3, 131-142.
- Wardle F.(1997). Outdoor play: Designing building and remodeling play grounds for young children. *Early childhood News*, 9(2), 32-36.
- Wellhausen, K.(2002). *Outdoor play everyday: Innovative play concepts for early childhood*. Albany, New York: Delmar.
- Wohlwillm, J., & Heft, A.(1987). The physical environment and development of the child In D. Stokols & I. Altman (Eds.), *Handbook of environmental Psychology (pp. 281-328)*. New York: Plenum Press.

(2007년 10월 21일 접수, 2007년 11월 21일 채택)